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2013. 1

투자정보팀

목 차

1.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	1
2.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현황 -----	15
3. 해외 주요국의 투자인센티브 운영 현황 -----	16
4. 주요국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례 -----	20

요 약

- Kotra는 해외 주요국의 투자인센티브 제도 현황파악 및 향후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 제도 개선 등에 참고하고자 주요국의 투자인센티브 현황과 실제 운용사례를 주요국 16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조사함
-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조세감면 제도이며, 각 국가별 인센티브 부여 조건에 부합 시 법인세, 관세, 지자체 관할 세금 등의 조세감면을 기업들에게 제공
 - 인센티브 부여 조건: 특별구역 입주, 낙후지역 입주, 고도기술 업체, 연구개발 기능 수반, 대규모 투자금액 기준 등임
- 현금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이며, 명시적으로 현금지원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별 프로젝트 사안에 따라 일부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조세감면, 현금지원 외에는 지역개발과 연계한 보조금 형태, 미국, 캐나다 등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세액공제 형태, 특별구역 입주 시 각종 혜택,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인력비용 지원, 연구개발 관련 비용 지원, 지역본부 설립 시 보조금, 그 외 각종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외 기업 동일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러시아, 인도, 일본* 등이 명시적으로 외국기업을 우대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내외 기업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원칙을 갖고 있으나, 실제 개별 프로젝트별 지원은 협상에 기초하여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연하게 지원되고 있음. 국내외 기업 동일지원이라는 기준이 실제 인센티브 지급 사례에서는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프로젝트의 중요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인도: 90% 정도는 국내외기업 지원 유사, 10% 정도 외국기업 우대

일본: 대지진 이후 외국기업의 탈일본 대응을 위해 '12.11.1 아시아 거점화 촉진 인센티브를 오히려 신설(연구개발 및 지역총괄에 인센티브 부여)

I.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 '10.6월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투자유치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보고서 중 주요국 인센티브 현황을 '12.12월 기준으로 업데이트 조사함

국 가	인센티브 개괄	주요 인센티브
미 국	• 주요수단 : 현금지원, 세액공제 • 연방정부의 경우 에너지 효율,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의 녹색 산업 분야와 중소기업 및 R&D에 대한 조세감면,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 • 주정부의 경우 연방정부와는 별도의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 미국의 경우, 세금공제 형태의 인센티브가 다수를 차지	▪ Business Energy Tax Credit(사업용 에너지 조세환급제) : 연료전지, 풍력에너지, 자연냉매, 지열 등에 대한 세액공제 ▪ Tax incentives in Empowerment Zones(EZs)(강화지구 조세인센티브) : 각각 강화지역 또는 재개발지역에서 지역주민 고용시 1인당 각각 최대 \$3,000/\$1,500 까지, 비지역주민 고용시 \$2,400까지 세액 공제 ▪ Electric Drive Vehicle Battery and Component(전기차 전지 및 부품 지원 프로그램) : 전지 및 전기차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건설 및 기타 등을 비용의 최대 50% 까지 지원 가능, 총 예산은 20억 달러 ▪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TIP)(기술 혁신 프로그램) :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기술에 대한 고위험/고성과의 연구를 지원하여 미국 내에서의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단일 기업의 경우 기업 당 3년간 총 \$3백만 달러까지, 합작투자기업의 경우 5년간 총 \$9백만 달러까지 지원 가능 - 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nufacturing (ATVM) Loan Program : ATVM 대출 프로그램은 미국에 재정비, 확장, 신축하는 자동차 회사에게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총 지원비는 25억 달러 정도이며 과거에 5천만 달러에서 5억9천만 달러까지 지급된 바 있음 -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 미 재무부는 MACRS 라는 감가상각비용을 줄여주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로 인한 손실을 되찾게 해주는 세액감면 제도 - Clean Energy Loan Guarantee Program : 미 에너지국의 대출 프로그램. 청정 에너지에 사업 기업에게 그 사업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대출과 지원 - EB-5 Visa for immigrant investors: 미국에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비자 특혜

캐나다	• 주요수단 : 세액공제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R&D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제도만 운영 중 • 주정부 차원에서도 대부분 세액공제의 인센티브를 제공	▪ SR & ED Tax Benefits(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al Development) : 캐나다 내에서 R&D활동을 위해 설립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투자자는 산식에 의해 산출된 R&D 비용 15%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캐나다기업은 비용의 35% 공제) ▪ SR & ED 관련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면, 주재국에 R&D 활동 시 기업은 약 23.6% 까지 공제 가능 (캐나다기업은 비용의 44.43%)																								
독 일	• 주요수단 : 현금지원, 조세 감면 • 연방정부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공동 과제라는 프로그램에 의거 하여 현금지원과 구 동독지역에 대한 조세감면을 제공 중임. 현금지원의 경우 투자 지역의 낙후정도와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하며, 현금지원과 조세감면 을 일정 한도내에서 중복 혜택이 가능 • 주정부도 각기 별도의 인센 티브제도를 시행	▪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WR*) : 지역불균형을 감소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연방 차원의 지원프로그램, 통독 이후 특히 동독을 중심으로 한 중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GWR 정책 도입으로 전체 독일 지역을 개발 발전 상태에 따라 A, A1, C, D, C/D의 5개 구역으로 분류, 중, 소, 대기업 별로 차등 지원 이 이루어짐. 투자지원방식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현금지원 *GWR: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지역별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을 상한선 <table><tr><th>지역구분</th><th>소기업</th><th>중기업</th><th>대기업</th></tr><tr><td>A지역</td><td>50%*</td><td>40%</td><td>30%</td></tr><tr><td>전 환단계 A지역</td><td>50% 40%(2011년부터)</td><td>40% 30%(2011년부터)</td><td>30% 20%(2011년부터)</td></tr><tr><td>C지역</td><td>35%</td><td>25%</td><td>15%</td></tr><tr><td>D지역</td><td>20%</td><td>10%</td><td>3년내 최대 20만 유로</td></tr><tr><td>E지역</td><td colspan="3">지원금 없음</td></tr></table> * 정부에서 투자로 인정하는 투자인정금액 대비 비율	지역구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A지역	50%*	40%	30%	전 환단계 A지역	50% 40%(2011년부터)	40% 30%(2011년부터)	30% 20%(2011년부터)	C지역	35%	25%	15%	D지역	20%	10%	3년내 최대 20만 유로	E지역	지원금 없음		
지역구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A지역	50%*	40%	30%																							
전 환단계 A지역	50% 40%(2011년부터)	40% 30%(2011년부터)	30% 20%(2011년부터)																							
C지역	35%	25%	15%																							
D지역	20%	10%	3년내 최대 20만 유로																							
E지역	지원금 없음																									

프랑스	• 주요수단 : 현금지원, 조세 감면 • 중앙정부에서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현금지원제도인 지역활성화(AFR) 프로그램을 운영 중. 일자리 창출 규모, 투자지역의 낙후도, 투자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이 차등적임. 이 외 공식화되어있지는 않으나 추가적인 혜택은 기업과의 개별적인 협상에 의해 제공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 투자우선지원권역('07년-'13년):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 프랑스의 지자체 지원(Zones AFR) 지역별 설정에 따라 지원금 상한은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10~15%, 중소기업의 경우 20~35%임. 동 지자체 지원 지역내 투자한 기업은 보조금, 부동산 지원금, 세금 면제 등의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음. 지원받은 투자 프로젝트는 그 지역에서 최소 3년(대기업은 5년)간 사업을 유지되어야 함 1) 지역개발보조금(Prim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PAT) <table border="1" data-bbox="869 475 2016 1023"> <thead> <tr> <th>분류</th><th>제조업, 서비스 분야</th><th>R&D, 혁신분야</th></tr> </thead> <tbody> <tr> <td>지역</td><td>AFR(낭뜨, 투르 등 지역활성화 지역)</td><td>프랑스 전역</td></tr> <tr> <td>지원대상</td><td> 1. 신규사업 - 25명 고용창출, 5백만유로 투자 - 혹은 50명 고용창출 2. 사업확장 - 50명 신규고용창출 - 25백만유로 투자 3. 인수(M&A) - 150개 고용 구제, 15백만 유로 투자 </td><td> ○ 20명 고용창출 ○ 7.5백만유로 투자 </td></tr> <tr> <td>지원금액</td><td>지역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르며, 1개 일자리 창출당 최대15,000유로 지원</td><td>프로젝트에 따라 1명당 최대 25,000유로를 지원</td></tr> </tbody> </table> ※ 1인당 소득, 실업률 등을 기준으로 낙후지역/준낙후지역/일시적 낙후지역 으로 구분 2) 지방정부 지원 : 지방정부는 지자체 지원 권역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해당 권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금 상한액 한도 내에서, 사업장(토지와 건물) 매입 가격 인하 등의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Subsidy)이나 PAT 보조금(supplements)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됨 ▪ 감면, 면세 : 지역경제 기여세(CET) 및 토지세 면세 조건은 지자체가 결정.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감세기간(2년~5년) 및 수혜 규모를 제외한 감세의 수혜기간은 자동 5년임	분류	제조업, 서비스 분야	R&D, 혁신분야	지역	AFR(낭뜨, 투르 등 지역활성화 지역)	프랑스 전역	지원대상	1. 신규사업 - 25명 고용창출, 5백만유로 투자 - 혹은 50명 고용창출 2. 사업확장 - 50명 신규고용창출 - 25백만유로 투자 3. 인수(M&A) - 150개 고용 구제, 15백만 유로 투자	○ 20명 고용창출 ○ 7.5백만유로 투자	지원금액	지역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르며, 1개 일자리 창출당 최대15,000유로 지원	프로젝트에 따라 1명당 최대 25,000유로를 지원
분류	제조업, 서비스 분야	R&D, 혁신분야												
지역	AFR(낭뜨, 투르 등 지역활성화 지역)	프랑스 전역												
지원대상	1. 신규사업 - 25명 고용창출, 5백만유로 투자 - 혹은 50명 고용창출 2. 사업확장 - 50명 신규고용창출 - 25백만유로 투자 3. 인수(M&A) - 150개 고용 구제, 15백만 유로 투자	○ 20명 고용창출 ○ 7.5백만유로 투자												
지원금액	지역과 기업규모 등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르며, 1개 일자리 창출당 최대15,000유로 지원	프로젝트에 따라 1명당 최대 25,000유로를 지원												

		법인세 면제는 방위산업 재편성 지역 및 고용창출 대상지역 내 투자일 경우에만 7년간 가능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태의 제조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2년간 지원받음. 사회보장세(고용주 부담) 면제 혜택은 경제 재편성으로 피해가 심한 지역 내 투자에 대해서만 가능
영 국	• 영국은 원칙적으로 자국 투자기업과 외국 투자기업 간 투자 인센티브 부여조건 및 내역에 차이를 두지 않음 • 투자 인센티브의 프로세스 복잡성 및 소요기간 고려시 영국기업보다 외국 투자기업이 불리한 구조임 • 단,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규모 및 외교적 중요성에 따라 영국 투자기업과 구분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 지역성장기금(The Regional Growth Fund / RGF) 과 R&D 프로젝트를 위한 현금 지원 및 세금감면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지역성장기금(The Regional Growth Fund / RGF) : 2011년부터 2015년간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성장기금은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민간기업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약 24억 파운드의 정부 지원 기금으로, 특히 공공부문에 주로 지역발전을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발전 구조를 민간화 하기위한 지원 프로그램임 • R&D 프로젝트를 세금 감면 인센티브 : R&D에 연간 1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위한 세금 감면 제도로, R&D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인건비, 소비재 혹은 전환재 사용비, 에너지, 물, 연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100% 세금 감면이 기업의 R&D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부여됨. 대기업의 경우 100% 세금 감면 외에 심사에 통과한 우수 R&D 프로젝트에 대한 현 지출금의 30%선에서 과세가능 소득에 대한 추가 감세가 가능함. 중소기업의 경우, 2012년 4월 부터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현 지출금의 125%에 해당하는 과세가능 소득에 대해 추가 감세적용 가능함.

러시아	• 주요수단 : 조세감면, 관세 감면 • 최근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하지만, 외국인투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가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음. 주된 인센티브로 관세 및 조세에 대한 감면을 시행중이며, 나노기술·농업 등 분야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	▪ SEZ(특별경제구역)의 주요 세제 혜택 및 토지구매 조건('12년 기준) <table border="1" data-bbox="857 252 1951 550"> <thead> <tr> <th></th><th>러시아</th><th>특별경제구역</th></tr> </thead> <tbody> <tr> <td>법인(이윤)세 [Profit tax]*, %</td><td>20</td><td>2~15.5</td></tr> <tr> <td>재산세 [Property tax]**, %</td><td>2.2</td><td>0</td></tr> <tr> <td>토지세 [Land tax]**, %</td><td>1.5</td><td>0</td></tr> <tr> <td>교통세 [Transport tax]**(EUR/h.p.)</td><td>0.1~3.5</td><td>0*</td></tr> <tr> <td>사회보장세 [Social tax]*, %</td><td>30</td><td>14~30</td></tr> <tr> <td>토지 매입 가격</td><td>100% 시장가격</td><td>4~50% 토지대장가격</td></tr> </tbody> </table> ※ SEZ : '05년도 투자유치를 위해 도입된 특별경제구역. 국내외기업 입주 * : SEZ 유형 및 지역에 따라 상이, 기술-벤처 SEZ가 가장 혜택이 많음. ** : 조세감면기간이 지방정부에 의해 5~10년까지 제공됨. - SEZ(특별경제구역)내 관세 혜택  ▪ 기타 지방도시/지역의 경우 Tax incentives로 주로 법인세, 재산세를 감면함. (토지세의 경우 지역에 따라 혜택 유무가 다름)		러시아	특별경제구역	법인(이윤)세 [Profit tax]*, %	20	2~15.5	재산세 [Property tax]**, %	2.2	0	토지세 [Land tax]**, %	1.5	0	교통세 [Transport tax]**(EUR/h.p.)	0.1~3.5	0*	사회보장세 [Social tax]*, %	30	14~30	토지 매입 가격	100% 시장가격	4~50% 토지대장가격
	러시아	특별경제구역																					
법인(이윤)세 [Profit tax]*, %	20	2~15.5																					
재산세 [Property tax]**, %	2.2	0																					
토지세 [Land tax]**, %	1.5	0																					
교통세 [Transport tax]**(EUR/h.p.)	0.1~3.5	0*																					
사회보장세 [Social tax]*, %	30	14~30																					
토지 매입 가격	100% 시장가격	4~50% 토지대장가격																					
일 본	• 주요수단 :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 아시아 거점화 촉진 인센티브 -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 : 글로벌기업의 신규 일본 내 사업 전개시 연구개발 사업 및 지역총괄 거점 사업에 대해 적용 (12.11.1시행) • 법인세 : 5년간, 20%의 소득공제 • 소득세 : 모기업(외국기업)의 스톡옵션 과세, 일본기업과 동등화 - 아시아 거점화 입지추진 사업비 보조금 : 일본에 연구개발 거점·지역총괄 거																					

	• 리먼사태 및 '11.3.11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외국기업의 탈일본 러시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에 따라 일본정부가 외투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 실시	점을 설립하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거점 설비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보조 (최초 사업공모: 11.8.23~10.31) • 대상 경비: 조사설계비, 공사비, 설비비, 시설 임대료 • 보조비율 : 중소기업 1/2, 중소기업 외 1/3, 재해지역 내 입지 2/3 ▪ 특구 인센티브 - 국제전략종합 특구 : 지정특구 내 규제 특례조치, 세제(법인세 등), 재정·금융상의 지원 조치 • 지정 특구: 도쿄(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홋카이도(푸드 콤플렉스 특구), 이바라키(츠쿠바 국제전략 특구), 가나가와(게이힌 임해부 라이프 이노베이션 국제전략종합 특구), 후쿠오카(그린아시아 국제전략 종합특구) 등 7개 지역을 지정 - 재해복구 특구 : 대지진 피해지역 각 현의 입지기업에 대해 규제완화, 우대세제 등의 지원조치 ▪ 입국에 관한 인센티브 - 고도인재 대상 포인트제 : 외국인 고도인재(능력, 자격 등)를 받아들이기 위해, 포인트 합계가 일정 기준에 달하는 자를 「고도인재 외국인」으로 인증하여 출입국관리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제도
싱가포르	• 주요수단 : 현금지원, 조세감면 • 투자유치기관인 EDB에서는 R&D, 지역본부, 신기술 분야 등에 다양한 조세감면을 제공 중이며 기업과의	▪ Development Expansion Incentive(DEI) : 우대세율은 5% 이상 10%이하. 첫 세금감면 기간은 10년을 넘지 않으며, 추가 감면기간은 5년 이내에서 결정(총 세금감면 기간은 20년을 넘지 않음) ▪ 연구개발에 대한 추가비용공제 Further Deduction for R&D Expenses(S14E): 싱가포르에서 수행되는 승인된 R&D프로젝트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의 100%까지 세액공제 ▪ 혁신 개발 제도 Innovation Development Scheme(IDS) : 혁신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인력관련 비용(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력의 월급(고용세 포함), 항공임 및 체제비, 훈련 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 시설 및 장비 관련 비용(시설, 설비 및 소프트웨어등)의 30%지원, 현지의 전문서비스(컨설팅, 계약 등) 이용시 비용의 50%, 해외 서비스 이용시 비용의 30%지원

	협상에 따른 현금지원 등이 일반화되어있음. 이 외에도 금융, 미디어, 항만 등 분야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시행중	지적재산권 관련비용(라이선싱, 로열티, 기술구매등)의 30% 지원 ▪ Regional/International Headquarters Award(RHQ/IHQ) : 지역본부에 대해 맞춤형 지원. 혜택세율은 15% 수준이며 3년+2년 기간동안 적용됨. 2년의 추가여부는 3년의 혜택기간동안 지역본부의 기능에 대한 추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됨 ▪ 선도기업 인센티브(Pioneer Incentive(PC-M or PC-S) : 새로운 산업기술과 지식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을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15년 이상 꾸준한 수익 창출 시 15년간 법인세 전면 면제 ▪ Venture Capital Fund Incentive(S13H) : 벤처투자펀드에 대해 10%이내의 세금감면(구체적인 세율은 EDB에서 결정)
중 국 (베이징)	• 주요수단 : 조세감면 • 중국은 2008년 내외국법인의 법인세를 기존 33%에서 25%로 통합하여 대폭 낮추었음. 성(省)마다 독자적으로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 (베이징)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에 인센티브 제도 시행 중	▪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 : 2009년 1월 1일 이후 베이징시에 신규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한 지역본부로 등록자본금이 1억 위엔 이상인 경우 3년에 걸쳐 등록자본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 ▪ 다국적기업의 년영업액에 대한 인센티브:2009년부터 인정된 지역본부가 년 영업액이 1억 위엔 이상인 경우 3년에 걸쳐 영업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함. ▪ R&D센터 설립 및 사무지역 구매 인센티브: 2009년 1월 1일 이후 베이징시에 R&D센터 자체건설 또는 사무지역 구매 시 사무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사무실 임대에 대한 인센티브: 2009년 1월 1일 이후 베이징에 사무실 임대시 임대금액에 따라 연속 3년 보조금 지급
중 국 (상하이) 중국	• 주요수단 : 조세감면, 현금지원 • 중국은 2008년 내외국법인	▪ R&D센터의 설비구입 관련 세제혜택 : 2009년 7월 1일~2010년 12월 31일 기간 외자 R&D센터가 기술개발을 위해 중국내 생산 불가 또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는 설비를 수입했을 경우 해당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함(단, 2009년 10월 1일 및 이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투자총액이 8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개발인원수는 150명 이상, 설립 이래 누계 설비구입

(상하이)	의 법인세를 기존 33%에서 25%로 통합하여 대폭 낮추었음. 성(省)마다 독자적으로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투자인센티브를 제공 • 2011수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에 따르면 외자 신분에 따른 투자 혜택 정책을 취소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산업, 지역, 프로젝트로 투자 우혜를 부여함. 외상투자 격려 산업은 High-end 제조업, High-tech 산업, 현대서비스업, 신재생 에너지, 환경보호 산업임. 지역적으로 서부지역에 대한 환경 보호 및 노동 밀집형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업에 소득세 우대정책 실행	원(原)가치액이 2,000만 위엔이상에 달해야 함) ▪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 : 2009년 1월 1일 이후 베이징시에 신규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한 지역본부로 등록자본금이 1억 위엔 이상인 경우 3년에 걸쳐 등록자본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 ▪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설립에 관한 현금지원 및 인센티브 : 상하이시는 2012년 8월 8일 《상하이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장려 규정(上海市鼓勵跨國公司設立地區總部的規定)》 實施意見 내용 A. 현금지원 및 인센티브 1. 사업 개시 보조금: 2008년7월7일 이후, 상하이에 회사를 등록하고, 10인 이상 및 지역 본부 시, 500만 RMB의 사업 개시 보조금을 3년 동안 40%, 30%, 30%로 차등 지급함 2. 임대 보조금: 2008년7월7일 이후 등록 및 상하이시 입주 기업, 10인 이상 다국적기업 본부가 사무실 임대 시, 최대 1000평방미터 8위엔/1평방미터/1일 기준으로 임대료의 30%를 3년 지급함 3. 2008년7월7일 이후,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로 인정되고, 연 매출액이 10억위엔 초과 시 또는 2008년7월7일 이전에 다국적기업 본부로 지정되고, 2008년부터 연 매출액이 10억위엔을 초과하는 투자 기업에, 1차적으로 1000만위엔 인센티브 지급. 상기 조건 5억위엔 연 매출액 초과 시, 1차적으로 500만위엔 인센티브 지급 2012년1월1일 이후,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로 인정, 연 매출 10억위엔 초과 시 500만위엔 인센티브 지급 4. 상하이 신설 다국적기업 본부 기능이 아세아 지역본부/아태 지역본부 시 사업 개시 보조금: 50명이상 인원 및 본사 임직원 상해 상주 시, 사업 개시 보조금 800만위엔 3년 차등 지급. B. 다국적기업 본사 및 장기거주 임원 관리인원 및 가족에 대한 비자절차 간소화
--------------	--	--

대 만	2010년 5월 ‘산업혁신조례’가 공포되었으며, R&D, 신약개발, 공공건설 참여 등에 대해 조세 인센티브 혹은 현금보조금 지급	<table><tr><td>R&D 인센티브</td><td>- R&D 투자 지출 금액의 15~30%에 대해 법인세 감면 (R&D 비용이란 신상품 연구개발, 생산기술 개선, 노무기술개선 및 제작 공정 개선에 지출되는 비용) - R&D 센터 설립 시 대만 경제부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급</td></tr><tr><td>바이오신약 개발 인센티브</td><td>- 바이오 신약 회사가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에 투자·지출하는 금액의 35%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법인세액 공제</td></tr><tr><td>자유무역지대 입주인센티브</td><td>- FTZ 내에서 사용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화물세·부가가치세·담배 및 주류세·담배제품의 건강복지기부금·무역진흥서비스비·항만서비스비 면제 - 또한 해외에서 반입하여 FTZ 내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관세·화물세·부가가치세·무역진흥서비스비·항만서비스비 면제</td></tr><tr><td>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인센티브</td><td>- 공공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5년 법인세 면제, 주주의 투자 공제, 민간기관의 투자공제, 수입관세 감면 혹은 분기납부, 토지세, 부동산세, 양도세 감면 등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td></tr></table>	R&D 인센티브	- R&D 투자 지출 금액의 15~30%에 대해 법인세 감면 (R&D 비용이란 신상품 연구개발, 생산기술 개선, 노무기술개선 및 제작 공정 개선에 지출되는 비용) - R&D 센터 설립 시 대만 경제부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급	바이오신약 개발 인센티브	- 바이오 신약 회사가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에 투자·지출하는 금액의 35%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법인세액 공제	자유무역지대 입주인센티브	- FTZ 내에서 사용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화물세·부가가치세·담배 및 주류세·담배제품의 건강복지기부금·무역진흥서비스비·항만서비스비 면제 - 또한 해외에서 반입하여 FTZ 내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관세·화물세·부가가치세·무역진흥서비스비·항만서비스비 면제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인센티브	- 공공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5년 법인세 면제, 주주의 투자 공제, 민간기관의 투자공제, 수입관세 감면 혹은 분기납부, 토지세, 부동산세, 양도세 감면 등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												
R&D 인센티브	- R&D 투자 지출 금액의 15~30%에 대해 법인세 감면 (R&D 비용이란 신상품 연구개발, 생산기술 개선, 노무기술개선 및 제작 공정 개선에 지출되는 비용) - R&D 센터 설립 시 대만 경제부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급																					
바이오신약 개발 인센티브	- 바이오 신약 회사가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에 투자·지출하는 금액의 35%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법인세액 공제																					
자유무역지대 입주인센티브	- FTZ 내에서 사용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화물세·부가가치세·담배 및 주류세·담배제품의 건강복지기부금·무역진흥서비스비·항만서비스비 면제 - 또한 해외에서 반입하여 FTZ 내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설비에 대해서는 관세·화물세·부가가치세·무역진흥서비스비·항만서비스비 면제																					
민간의 공공건설 참여 인센티브	- 공공건설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5년 법인세 면제, 주주의 투자 공제, 민간기관의 투자공제, 수입관세 감면 혹은 분기납부, 토지세, 부동산세, 양도세 감면 등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																					
베트남	• 주요수단 : 조세감면 •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등 55개 투자우대지역 또는 첨단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우대분야에 투자시 조세감면을 제공하며, 고정 자산이나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도 시행 • 2011년 11월 15일자로 투자기업 High Tech 사업	▪ 투자분야 및 투자지역에 따라 투자인센티브 부여 : 투자 우대지역(박관, 까오방, 하찌망 등)과 첨단기술단지 및 9개 경제특구 등 총 55개 우대지역이 있음 <u>법인세 우대 세율표</u> <table><tr><th>법인세율</th><th>대상</th><th>우대세율적용기간 (우대기간 종료 후 25% 적용)</th><th>완전면제기간</th><th>50% 감면기간</th></tr><tr><td>25% 표준세율</td><td>우대세율 미적용 법인</td><td>전 사업기간</td><td>제조법인에 대해 소득발생연도부터 2년</td><td>면제기간종료 후 2년 (신설 또는 지방이전 하는 기존법인)</td></tr><tr><td>20%</td><td>일반우대지역</td><td>전 사업기간</td><td>소득발생연도부터 2년</td><td>면제기간종료 후 6년 (신설 또는 지방이전 하는 기존법인)</td></tr><tr><td>10%</td><td>High Tech 분야, 특별우대지역, 경제특구</td><td>사업개시연도부터 15년</td><td>소득발생연도부터 4년</td><td>면제기간종료 후 9년</td></tr></table>	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적용기간 (우대기간 종료 후 25% 적용)	완전면제기간	50% 감면기간	25% 표준세율	우대세율 미적용 법인	전 사업기간	제조법인에 대해 소득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기간종료 후 2년 (신설 또는 지방이전 하는 기존법인)	20%	일반우대지역	전 사업기간	소득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기간종료 후 6년 (신설 또는 지방이전 하는 기존법인)	10%	High Tech 분야, 특별우대지역, 경제특구	사업개시연도부터 15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	면제기간종료 후 9년
법인세율	대상	우대세율적용기간 (우대기간 종료 후 25% 적용)	완전면제기간	50% 감면기간																		
25% 표준세율	우대세율 미적용 법인	전 사업기간	제조법인에 대해 소득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기간종료 후 2년 (신설 또는 지방이전 하는 기존법인)																		
20%	일반우대지역	전 사업기간	소득발생연도부터 2년	면제기간종료 후 6년 (신설 또는 지방이전 하는 기존법인)																		
10%	High Tech 분야, 특별우대지역, 경제특구	사업개시연도부터 15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	면제기간종료 후 9년																		

베트남	분야 인센티브 신청을 위한 절차 안내 시행령 발표	HIGH TECH 분야 인센티브 획득 조건		
		조건	연구개발 목적 프로젝트	생산 목적 프로젝트
		분야	관련기술 High Tech 프로젝트, 신기술 또는 투자법상 우대분야 리스트에 포함	관련 제품이 High Tech 사용을 통한 제품 리스트 또는 투자법상 우대분야 내 High Tech 사용을 통한 제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제품	제품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부자재는 향후 베트남 내 원자재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함	- 고품질, 고부가가치여야 하며, 친환경적 상품이며, 수입제품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함 - 제품 생산라인, 설비는 선진 기술에 부합 각 생산라인 내 주요 설비는 생산활동 이후 최대 5년에 1번 교체되어야 함 - 프로젝트의 품질관리 시스템은 국가표준인 TCVN ISO 9001(CMM / GMP) 인증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국제표준 인증을 받아야 함 - 프로젝트는 베트남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ISO 14000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을 받을 것을 권고
		연구개발	관련 인력 중 최소 5% 이상은 연구개발에 참여하여야 하며,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함	해당사항 없음
		기술개발비용	베트남 내 기술 개발비용으로 총 매출액의 1% 이상을 지출해야 함	해당사항 없음
		진행	High Tech 사업 기술 확인절차 진행 및 기준시행 확약서 제출	

인도네시아	• 주요수단 : 조세감면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화학, 제약, 기계 등 15개 산업군이 우선 순위 산업군으로 동 산업에 투자 시 조세감면 및 수입 관세 감면을 제공. 이 외에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음	▪ 세액공제 : 2007년 1월이후 BKPM* 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신규투자기업 및 기투자업체의 확장투자도 포함) 중 식품, 섬유, 제지 등 정부지정 15개 업종에 대해 고정자산 투자의 30% 상당액을 6년에 걸쳐 과세소득에서 공제(매년 5%) *BKPM :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 법인세감면: 기초금속, 정유, 유기화학, 산업용기계, 신재생에너지, 통신장비 등 선도 산업 분야의 기업 중, 2010년 8월 15일 이후 설립되고 투자금액이 1조 루피아 이상(상업생산 전 투자금액의 10% 은혜예치의무)인 경우, 상업생산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5년~10년 동안 법인세 면제, 추가로 법인세 50% 감면
인도	• 주요수단 : 조세감면 • 인센티브제도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지는 않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승인하는 투자 개방이 외국인에 대한 혜택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	▪ 특별경제구역(SEZ) 운영 : 면세지역으로 지정받아 무역활동, 관세, 조세 등에서 외국영토로 간주하며,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예비품(spares) 등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또한 국내 시장으로부터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예비품 조달 시 물품세(Excise Tax)를 면제하고, 수출이익에 대해 초기 5년간 법인세를 100% 면제, 향후 5년간 50%, 추가 5년간 재투자 이익의 50%까지 면제함.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서 100% 외국인직접투자를 자동 승인함 ▪ 수출촉진구역(EOU) : 100% 외국인직접투자를 자동 승인함. 수출 이익에 대해 면세기간을 주며, 수입세를 면제하고, DTA(국내관세지역)에 소비세 면제함 ▪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세를 면제하며, 수출이익에 대해 100% 세금을 면제함

인도

특별경제구역, 수출촉진구역과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에 조세감면 및 관세감면을 시행하며, 각 주정부는 개별적으로 조세감면이나 입지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인도의 각 주정부는 해당 주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조세 감면, 금융 지원, 이자보조기금 지원, 전기요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구분	중앙정부		주정부	
	동일적용	차등적용	동일적용	차등적용
외국 기업	1. 특별경제구역 (SEZ) 입주 2. 수출촉진구역 (EOU) 입주 3.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 입주	인도 정부는 기존 투자 금지 대상이었던 멀티브랜드 소매업 (0%→51%) 개방, 민간항공 시장 개방 등을 투자 인센티브로 생각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자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인도의 각 주정부는 산업 투자 정책을 발표하고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있음. 예를 들어 하리아나 주정부의 경우, 10억 루피 이상의 대형 투자, 식품 가공 산업,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기업과의 차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내 기업		N/A		

브라질	• 주요수단 : 조세감면, 토지 제공 등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도는 없으며 인센티브 지급여부는 지방정부의 재량임. 각 지방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유통세 인하(ICMS), 시정부세 면제(ISS), 토지무상제공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지방정부 재량으로 주유통세(ICMS) 감면, 시정부세(ISS) 면제, 토지무상 제공,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함 ▪ 이외 해당 지역의 문화진흥위원회(CNIC)에 의해서 승인된 문화 또는 예술 관련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경우, 최대 법인세의 4%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체육부에 의해서 승인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경우도 최대 4%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북동부 및 아마존 지역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SUDENE(북동부 개발 위원회) 및 SUDAM(아마존 개발 위원회)가 승인하면, 최대 법인세의 75% 감면
------------	--	--

2. 해외 주요국의 법인세율 현황

국가명	중앙정부 법인세율(%)	지방정부 법인세율(%)	합계세율(%)
미국	35.00	6.36	39.10
캐나다	15.00	10.00	25.00
독일	15.00	14.35	30.18
프랑스	34.43 ¹⁾	0.00	34.43
영국	24.00	0.00	24.00
러시아 ²⁾	2.00	18.00	20.00
일본	25.5	12.5	38.01
중국	25.00	0.00	25.00
말레이시아	25.00	0.00	25.00
싱가포르	17.00	0.00	17.00
베트남	25.00	0.00	25.00
대만	17.00	0.00	17.00
인도	국내기업: 33.22 외국기업: 42.23	0.00	국내기업: 33.22 외국기업: 42.23
인도네시아	25.00	0.00	25.00
브라질 ³⁾	15.00	0.00	15.00
홍콩	16.50	0.00	16.50
한국 ⁴⁾	22.00	2.20	24.20

1) 매출 규모가 763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표준 세율은 33.33%임. 수익이 228만 9000유로 이상일 경우에는 사회보장연대세(법인세의 3.3%)가 추가되어 총 34.43%가 됨. 매출규모가 2억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사회연대세 3.3% 및 5%의 내소세가 추가된 세율 36.10%가 됨

2) 러시아의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는 표준 과세율이 20%이며, 연방예산에 2%, 지역예산에 18%가 귀속됨. (광역단체의 경우 세율을 자체적으로 4.5%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3) 브라질은 연 수익액 48만헤알 이상인 경우 10% 추가부과

4) 2012.1.1 이후 법인세율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눔: 2억 이하(10%), 2억-200억 이하(20%), 200억 초과(22%). 해당 법인세율의 10%는 지방정부에 납부

3. 해외 주요국의 투자인센티브 운영 현황

국가	운영형식	실제 운용사례
	1. 외국기업 우대여부 2. 고정적 or 협상식 인센티브	* 국내기업, 외국기업 지급사례 각각 2개씩 정리(상세자료는 별첨)
미국	1. 국내외 기업 동일지원 원칙, 국적 상관없이 프로젝트별 차등지원 2. 대부분 협상식	(국내) 1.Caterpillar의 Texas 진출 2.Motorola의 Virginia 진출 (해외) 1.벨기에의 ASCO Industries의 Oklahoma 진출 2.영국의 Rolls Royce의 Virginia 진출 등
캐나다	1. 국내외 기업 동일지원 2. 고정적 인센티브	(국내) 보안 s/w 개발업체 (해외) 기계개발 및 인증서비스 업체
독일	1. 국내외 기업 동일지원 원칙, 국적 상관없이 프로젝트별 차등지원 2. 한도내 현금지원 협상	(국내) 1.Eberspaecher, 2.Wilo (해외) 1.Johnson Controls 2.Hitachi Automotive Systems
프랑스	1. 국내외 기업 동일지원 원칙, 국적 상관없이 프로젝트별 차등지원 2. 고정적 인센티브 * 단, 대형프로젝트(디즈니, 도요타 등) 유치시 인프라 구축 등 비공식 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있었음	(국내) 사례 확인 불가 (해외) 벨기에 UNILIN 社
영국	1. 국내외 기업 동일지원 원칙, 국적 상관없이 프로젝트별 차등지원 2. 기본운용 원칙은 고정적이거나 프로젝트 중요성에 따라 협상 을 통해 처리됨	(국내) 1.Bently Motors에 469만 파운드 지급 2.Zytek Automotive에 130만 파운드 지급 (해외) 해외기업에 대한 지급사례는 공 식적으로 발표되는 바 없음
러시아	1. 외국기업 우대 2. Tax incentive의 경우 주로 고정적이며, 그 외 비조세 부분(전기,수도,도로 등 인 프라 지원, 인허가 지원 등)은 협상에 따라 상이	(해외) 1.B사 : 특별경제구역 입주로 관세 혜택 및 조세 인센티브 제공받음 2.H사 : Saint-petersburg시에 공장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에서 관세 혜택 및 조세 인센티브, 비조세 지원을 받음

국가	운용형식 1. 국내·外투자 차별성 여부 2. 고정적 or 협상식 인센티브	실제 운용사례 * 국내기업, 외국기업 지급사례 각각 2개씩 정리(상세자료는 별첨)
일본	1. 외국기업 우대 * 동일본대지진 이전에는 차별화된 투자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이후 * 아시아 거점화 촉진 인센티브 -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 (12.11.1 시행) * 특구 인센티브 - 국제전략종합 특구 - 재해복구 특구 2. 고정적 인센티브	(국내) 없음 (해외) 아시아거점화 입지추진채택 사업 (11.12 발표) · Sanofi-Aventis(지역총괄) · 3M Helth Care(연구개발) · DSM Japan(연구개발) · Volvo Technology Japan(연구개발) 등 총 10건 채택 * 상세 지원 내용은 비공개
중국	1. 국내외 기업 동일지원 원칙, 국적 상관없이 프로젝트별 차등지원 *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현금지원 및 인센티브 * 외상투자 구조 조정 정책 실행, 2008년 외국기업에 세제 혜택 폐지 2. 협상식 인센티브 : 정부 장려 산업,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인센티브가 높음	(국내) 1. 금융업 소주공업원구 정책 - 소주 본부 설립 시, 5년중 첫 3년 임대료 50% 지원, 2년은 25% 지원, 최대 200만위엔 지원 2. 상하이 고도기술 기업 - 고도기술 기업으로 인정되면, 기업 소득세 15%~20%로 우대 (해외) 1. 삼성전자 서안 투자 - 재정정보조 투자금액의 30% - 인프라 시설 지원 - 10년 면세 정책 2. HP - 서부 개발 우대정책으로 기업소득세 15%
말레이시아	1.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2. 고정적 인센티브 기본 - 기간이나 면세율은 투자규모나 파급효과에 따라 협상	(국내) 로컬기업 다수 (해외) 삼성 SDI 등

국가	운용형식	실제 운용사례 (상세자료는 별첨)
싱가포르	1.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단, 수혜가능한 역량을 지닌 국내기업이 많지 않은 실정 2. 협상을 통해 세부내용 규정	(해외) Fluidigm 협약체결을 통한 보조금 지급 사례
베트남	1.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 2006년 이후 투자법을 일원화 하여 국내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음 2. 고정적 인센티브 * 실제 이러한 인센티브 혜택 조건은 매우 광범위하여 규정상 적용을 통해 혜택을 받기보다는 투자규모 해당 성(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 협상이 가능	(국내) Hicon 사 : 경제구역 투자 우대 정책에 따른 세율적용(법인세 10%적용, 수입세 5년간 면제 등) (해외) 1.삼성전자 : 법인세 50년간 10% 적용, 5년간 부품수입 무관세 2.케피코 : 법인세 15년간 10% 적용(High Tech 기업 인증), 인력교육 보조금 지급
대만	1.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2. 협상식 인센티브	(국내) Everlight Chemical - R&D 보조금(NTD4.9백만) (해외) Taiwan TDK - R&D 보조금(NTD95.7백만)
인도	1. 외국기업 우대 - 인도는 기존에 외국기업에 개방하지 않고 있던 산업을 개방하는 것을 일종의 인센티브로 인식 - 인도 투자관련 기관인 Invest India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에 90% 가량은 동일하게 인센티브가 적용되나, 나머지 10% 가량은 외국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힘 2. 고정적 인센티브	(해외) 한국기업 생산공장 설립 - 지방정부에서 법인세 최초 5년간 면제, 향후 20년간 법인세 25-50% 감면
인도네시아	1.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2. 협상식 인센티브	(국내) 없음 (해외) 포스코

국가	운용형식 1. 국내·外투자 차별성 여부 2. 고정적 or 협상식 인센티브	실제 운용사례 * 국내기업, 외국기업 지급사례 각각 2개씩 정리(상세자료는 별첨)
브라질	1. 국내외 기업 동일지원 원칙, 국적 상관없이 프로젝트별 차등지원 2. 협상식 인센티브 * 지방정부의 재량 사항임	(국내) Foxconn의 ipad 생산을 위한 현지 투자로 IPI(공업세) 15%에서 3%로 감면, PIS/Cofin (사회보장세) 면제 혜택 (해외) 한국기업 H사는 토지무상제공 (100,000m ²), 기초공사, 공장까지 연결되는 도로공사 등의 인센티브 획득
홍콩	1. 국내외 기업 동일 지원 2. 고정적 인센티브 * 투자 시 현금 등 지원은 전무하나 타국 대비 低세율, 투자 절차 간소 등 투자환경 최적화 노력, 단, 기진출/혹은 자국의 중소 규모 기업의 경우 마케팅 및 R&D 활동 지원을 위한 펀딩 일부 보조	(해외) 한국의 위즈네트社는 홍콩 정부가 운영 중인 산업단지 겸 인큐베이터 시설인 사이언스 파크에 입주해 저렴한 임대료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음(단, 사이언스파크 수혜는 국내외기업 동일 적용)
한국	1. 외국기업 우대 2. 고정식 인센티브 * 현금지원 등 일부 협상	(국내) 대부분 규정에 따른 지원 및 감면, 유한킴벌리사가 지자체로부터 '11년 85억원 재정지원 받은 것 외에는 사례를 찾기 어려움 (해외) 1. 일본 B사 조세감면 2. 벨기에 U사 현금지원

4. 주요국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례

미 국

[사례 1]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벨기에)

- 투자 기업 : ASCO industries
- 투자 규모 : 70백만불
- 투자 지역 : Stillwater, Oklahoma
- 투자 시기 : 2012년 7월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투자액의 39%를 현금지원
 - * 2015년 까지 100백만불 투자 할 경우 총 39백만불 지원
- (지방정부) 5%의 세액공제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항공 우주 산업은 미국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첨단산업으로 미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 제공
 - * Oklahoma는 연방정부차원에서 미국의 항공우주 클러스터 집중 양성 지역
- (지방정부) 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2,000백만 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키므로 지원 결정

[사례 2]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 캐나다)

- 투자 기업 : Bombardier
- 투자 규모 : 600백만불
- 투자 시기 : 2012년 4월
- 투자 지역 : Wichita, Kansas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정부) 총 16백만불, 확장에 대한 지원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정부) 확장으로 인한 450개의 일자리 창출과 Wichita 지역의 IT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사례 3]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영국)

- 투자기업: Rolls Royce
- 투자규모: 초기 투자금은 100백만불, 후에 500백만불 더 투자됨
- 투자지역: Crosspointe, Prince George County, Virginia
- 투자시기: 2009년 8월에 공장 건설 시작
2011년 5월에 준공 완료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정부) 총 66백만불 지급
 - * Custom Grant Program (양여금) : 48.8 백만 불
 - Governor's Development Opportunity Fund (정부의 발전기금)
 - Virginia Jobs Investment Program (사업 확장 및 창업 장려 프로그램)
 - Tobacco Region Opportunity Fund (담배 생산 지역에 제공하는 양여금)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정부) 500개 이상의 직업이 생겨 고용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Virginia 주의 경제 부흥을 위해 인센티브를 타 주와 경쟁하여 유치

[사례 4]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한국)

- 투자기업: 현대 자동차
- 투자규모: 초기 투자금 10억불
- 투자지역: Hope Hull, Alabama
- 투자시기: 2002년 4월에 투자 결정, 2005년 5월에 앨라배마 주에 준공 완료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 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 정부) 총 2.53억불
 - * State and local funds (주와 지역에서 제공하는 자금) : 236.6백만불
 - Private money for preparation of the plant site near Montgomery (비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금) : 18백만불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정부) 20,000개의 직업 창출과 7십억불 재정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 인센티브 경쟁이 벌어짐

[사례 5]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독일)

- 투자기업: Mercedes Benz
- 투자규모: 300백만불
- 투자지역: Vance, Alabama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 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 정부) 총 153백만불
 - * 직원들 첫 1년 월급 지급/ 직원 교육비 지원/ 2500대의 고가 기계 구입비용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정부) 벤츠가 30개 주에 170여 곳을 눈여겨보던 중 North Carolina 와 Alabama가 유치 경쟁을 벌임. North Carolina는 인센티브로 100백만불을 제시했으나 벤츠 측에서 직원들 첫 1년 급여지급을 제시하자 거절. 반면에 경쟁 주였던 Alabama는 그 제안을 수락

[사례 6]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독일)

- 투자기업: Volkswagen
- 투자규모: 40백만불 대출 + 250백만불 투자
- 투자지역: Westmoreland County, Pennsylvania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정부) 총 70백만불
 - * 공장 설치비용 지급/ 사회간접자본 구축비용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정부) 일자리 창출과 이윤증대로 주의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함. Baltimore와 Westmoreland County가 서로 경쟁 했으나 Pennsylvania가 유치하는데 성공

[사례 7]

□ 프로젝트 주요 내용(국내기업)

- 투자 기업 : Caterpillar
- 투자 규모 : 150백만불
- 투자 지역 : Victoria, Texas
- 투자 시기 : 2010년 8월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정부) 총 1.175백만불 지원
 - * Texas Enterprise Fund에서 지원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 정부) 225개의 일자리 창출과 200백만불의 투자 자금 조성으로 지속적인 Victoria 지역 고용 확대

[사례 8]

□ 프로젝트 주요 내용(국내기업)

- 투자 기업 : Motorola
- 투자 규모 : 30억불
- 투자 지역 : Virginia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정부) 총 86백만불 지급
 - * wafer가 팔릴 때마다 250불씩 지급 -> 총 60백만불로 예상
 - *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정부) 5,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그로 인한 경제 파급효과로 서로 유치하려는 주 간의 경쟁이 치열

캐나다

[사례1]

□ 프로젝트 주요 내용(국내기업)

- 국내기업: 보안(Security)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 * 새로운 컨트롤러 하드웨어 개발과 클라이언트의 실시간 정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 * 약 2000명 직원 보유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약 CAD\$266,700
 - * 조세감면 신청액은 \$762,000
- (주정부) 약 CAD\$68,580
 - * 조세감면 신청액은 \$762,000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 현재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으로 취급 되어 첫 연구개발의 리스크 분담을 위한 공제
 - 관련 산업 현존 기술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라 판단하며 전문가의 체계적 조사, 실험 및 분석을 통하여 해결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연구개발 시작 후 18개월 내 조세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기술적 분석, 비용과 행정 관련 납세신고서 및 활동에 대한 세부적 보고서 제출 필요
 - 조세감면 신청비용과 연구개발 활동의 연계를 증명할 서류 필요
- (주정부)
 - 연방정부 조세감면 자격조건을 충족하며 해당 주에 영구적 시설 보유

[사례2]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 외국기업: 사찰, 검증 및 인증 서비스 제공 기업
 - * 기계 개발, 탐지 범위 제고, 새로운 실험 방법 연구를 위한 프로젝트
 - * 전 세계 약 70,000명의 직원 보유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약 CAD\$2,000,000
 - * 조세감면 신청 액은 \$10,000,000
- (주정부) 약 CAD\$500,000
 - * 조세감면 신청 액은 \$10,000,000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 주재국 경제개발 및 현지인력 고용과 산업 기준을 향상시키는 이론적/실용적 연구에 기여한다고 판단
 - 현재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로 취급 되어 첫 연구개발의 리스크 분담을 위한 공제
 - 관련 산업 현존 기술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라 판단하며 전문가의 체계적 조사, 실험 및 분석을 통하여 해결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
 - 연구개발 시작 후 18개월 내 조세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프로젝트의 기술적 분석, 비용과 행정 관련 납세신고서 및 활동에 대한 세부적 보고서 제출 필요
 - 조세감면 신청비용과 연구개발 활동의 연계를 증명할 서류 필요
- (주정부)
 - 연방정부 조세감면 자격조건을 충족하며 해당 주에 영구적 시설 보유

[사례 1]

□ 프로젝트 주요 내용(국내기업)

- 투자기업: Eberspaecher Exhaust Technology
- 투자지역: Wilsdruff, Sachsen Anhalt州
- 투자시기: 2011년
- 투자내용: 상용차를 위한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 생산 공장 및 사무실 설립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N/A
- (지방정부): "Joint Task for the Promotion of Industry and Trade" (GRW) 현금지원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N/A
- (지방정부): Joint Task for the Promotion of Industry and Trade
현금지원 인센티브
 - 지급이유: 주요 동부 독일 지역 경제구조 개선
 - 지급기준: 현금 지원은 국내외기업 차별 없이 하기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됨
 -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
 - 제조업 (화학, 자동차, 섬유, 부품소재 등)
 - 서비스 산업 (IT, 정보통신, 물류, 마케팅, 출판 등) 또한
 - 동부 독일에 투자 시 숙박 시설 분야
 - 제외된 분야: 농업, 산림, 수산업, 광산업, 에너지 공급, 상수도, 소매, 조선, 철강사업 등

- 공공 자원 자금 혜택을 받지 않고,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는 과학 또는 기술 분야 연구시설
- 동부 독일 또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 지원절차: GWR 현금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는 규정된 양식에 따라 투자 계획 실행 전에 각 연방 州에 소속된 투자은행에 자필 서명 및 구체적인 투자 계획 서술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관할 이사결정 기관은 (연방 州 정부) 투자프로젝트 실행 전에 현금지원 자격을 자세히 검토 후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지원 통보. 행정행위 서식으로 승인 통보가 지원자에게 송부된 후부터 현금 지원 가능

[사례 2]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 투자기업: Johnson Controls System
- 투자지역: Zwickau, Sachsen 州
- 투자시기: 2011년
- 투자내용: 배터리 생산 공장 확장 및 새로운 생산 용량 설립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N/A
- (지방정부): "Joint Task for the Promotion of Industry and Trade" (GRW) 현금지원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N/A
- (지방정부): Joint Task for the Promotion of Industry and Trade 현금지원 인센티브
 - 지급이유: 주요 동부 독일 지역 경제구조 개선
 - 지급기준: 현금 지원은 국내외기업 차별 없이 하기와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됨

*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

- 제조업 (화학, 자동차, 섬유, 부품소재 등)
- 서비스 산업 (IT, 정보통신, 물류, 마케팅, 출판 등) 또한
- 동부 독일에 투자 시 숙박 시설 분야
- 제외된 분야: 농업, 산림, 수산업, 광산업, 에너지 공급, 상수도, 소매, 조선, 철강사업 등

* 공공 자원 자금 혜택을 받지 않고,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는 과학 또는 기술 분야 연구시설

* 동부 독일 또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 지원절차: GWR 현금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는 규정된 양식에 따라 투자 계획 실행 전에 각 연방 州에 소속된 투자은행에 자필 서명 및 구체적인 투자 계획 서술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관할 이사결정 기관은 (연방 州 정부) 투자 프로젝트 실행 전에 현금지원 자격을 자세히 검토 후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지원 통보. 행정행위 서식으로 승인 통보가 지원자에게 송부된 후부터 현금 지원 가능

프랑스

□ UNILIN 단열패널 생산공장 설립 프로젝트(외국기업)

- 투자기업명 : UNILIN
- 투자규모 : 22백만유로
- 투자지역 : Loire Forez(론알프스 지역)
- 투자시기 : 2011년-2013년
- 주요내용
 - UNILIN사는 벨기에 기업으로, 폴리우레탄 단열패널 생산공장을 Loire Forez에 신규로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2013년 말 제품 생산 예정임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중앙정부) 프랑스의 지자체 지원(Zones AFR) 지역에 입지했기 때문에, 최대 3.3백만유로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이 중 PAT 보조금으로는 최대 75만유로²⁾를 받을 수 있음

- 1) 대기업 투자금액의 10-15%가 상한액임(22백만유로x0.15=3.3백만유로)
- 2) 1개 일자리당 최대 15,000유로 지원(1.5만유로x50개 일자리=75만유로)

* 지원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산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자료임

- 기타 지원

- 공개되지 않은 세제 혜택
- 프랑스 투자진흥청, 지방 투자진흥청으로부터 입지정보 지원받음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Zones AFR) 지역 내 입지하면 고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음(서류는 투자지역 Prefecture에 접수). 지원금 상한은 대기업의 경우 투자액의 10~15%, 중소기업의 경우 20~35%임. 동 지자체 지원 지역 내 투자한 기업은 보조금, 부동산 지원금, 세금 면제 등의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음. PAT 보조금으로 지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CIALA(Interministerial Commission for Business Location Aid)의 서류심사를 거쳐야 함

* 정보 공개를 꺼려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는 확인이 불가함

러시아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 한국의 H사는 2008~2009년 러시아 Saint-Petersburg시 지역에 약 4억불 규모의 시설투자를 진행함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부품 특혜관세 제공
- (지방정부) 조세감면, 입지지원(부지정지, 도로·전력 등 인프라 지원)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투자산업분야, 규모를 고려 지방정부/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
- (지방정부) 투자규모가 약 3천만 달러 이상일 경우 조세감면 지원(법인세 18%→13.5%, 재산세 면제), 투자규모에 따라 감면기간 상이, 보조금 제공 없음

중 국

[사례1]

□ 삼성전자 서안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프로젝트

- 70억불, 삼성전자, 중국 서안, 2012년 생산라인 건설
- 중국 서안시 고신기술산업 개발구에 반도체 신규라인 건설을 위해 자본금 23억불 출자. 향후 총 투자 규모 70억불
- 삼성전자의 해외 반도체 생산라인 단일 투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
- 2013년 末부터 10나노급 낸드 플래시를 본격 생산할 예정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정부 보조
 - 재정 보조금 30%, 전 10년 기업소득세 면제, 후 10년 50% 면제
 - 130만 평방미터 공장 건설, 토지 면비 사용
 - 매년 물, 전기, 녹화, 물류 비용으로 5억위엔 보조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정부 인센티브 지급 기준

- 2011수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에 따르면 외자 신분에 따른 투자 혜택 정책을 취소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산업, 지역, 프로젝트로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함.
- 삼성전자 투자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High-end 제조업, High-tech 산업, 동시에 서부 대개발 정책의 전략 요충지 투자로 중국 정부의 2012년 외투기업 정책 기준에 부합

[사례2]

□ CJ 료청시 바이오 공장 프로젝트

- * 투자액 : 3억 달러
- * 투자시기 : 2004년 4월

○ 2012년 매출 3억5000만 달러 달함

- * 투자규모는 초기의 4500만 달러부터 3억 달러로 증가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정부

- 고정 자산 투자가 3000만위엔 이상 시, 2년 동안 지방세의 80% 반환
- 료청시는 기존 공장부지 16만평(공장 12만평+발전소 4만평)에 8만평 추가 지원
- 공장 인근에 4만평 규모의 자체발전소도 인가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정부 인센티브 지급 기준

- 3000만위엔 이상 신규 프로젝트 진행 시, 2년간 80% 지방세 면제
- 고정자산 투자 5000만위엔 이상 시, 도로 물 전기 가스 등 비용 감면
- 고신기술 기업 영업이익이 있는 년도부터 3년간 지방세 면제

말레이시아

[사례 1]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 말레이시아 수도 인근(세레반)지역에 삼성 SDI 2차전지 생산라인 증설 계획
 - * 투자시기 : 2013년~2014년
 - * 투자규모 : 3~4억불 예상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조세감면 제공 예정
 - 기타 인프라(도로) 지원 등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 말레이시아 투자법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따라 협상되었으며 10년간 100% 법인세 면제 적용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음
 - * 조세감면 이외에 정확한 추가 인센티브 내역은 대외비로 밝히기를 거부

[사례 2]

□ 프로젝트 주요 내용(국내기업)

- MDT Innovation Sdn Bhd
 - * 세부 프로젝트 계획은 MIDA 직원이 밝히기를 거부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조세감면 제공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 말레이시아 투자법에 명시된 MSC* 지위를 획득하여 10년간 100% 세금감면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음

* 조세감면 이외에 정확한 추가 인센티브 내역은 대외비로 밝히기를 거부

=> 말레이시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유치기관 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특별한 법률이나 지원기관이 없음. 즉, 내·외국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시 국내 산업 파급 효과 등을 고려(투자 주체의 국적보다 투자규모나 기술력 등을 우선)보다 하여 투자법에 따라 실제 사례에서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싱가포르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 Fluidigm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바이오 칩 연구개발 및 제조기업으로 2005년 10월 제조공장 설립 및 2007년 2월 바이오메디컬 제품 연구개발 센터 건립을 통해 싱가포르에서의 연구개발 및 제조 활동을 더욱 지속 확대 강화함. 초기 제조공장 설립에 2300만불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R&D 센터 규모 및 이후 확대 투자액을 비롯한 총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음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절차 및 내역

- 2005년 10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Fluidigm 간 인센티브 관련 1차 협약서 체결. 동 협약서에는 인센티브 지급가능 기간, 지급대상 기업 활동, 지급요건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겨있음
- 2006년 1월, 위의 협약서에 대한 보충 협약체결, 동 협약서에는 매년 분기별로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EDB와 Fluidigm간 합의 하는 절차를 담고 있음

- 1차 협약서 주요 내용
 - 인센티브 지급대상 프로젝트 시기: 2005. 8.1~ 2010. 7. 31
 - 지급대상 활동 : 연구개발 활동, 바이오 칩 제조 활동
 - 지급내용 : 협의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월급, 간접비용, 아웃소싱, 하위 계약비용, 운영비용, 원자재 구입등과 관련된 비용의 일정 비율로 계산
 - 지급요건 : 연구개발 수준, 제조활동 수준, 연구개발 과학자 및 엔지니어 고용 수, 매년 협의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싱가포르에서 개발된 제품을 일정규모이상 싱가포르에서 제조할 것 등
 - * 연구개발 목표, 고용 수 등 세부 지급요건 내용은 모두 양자 간 협상의 결과로 협약서에 특정되어있으나 비공개 자료임
 - 최대 지급가능 보조금 : S\$1,000만 (2011년 환율기준 US\$770만)
- 2010년 7월 Fluidigm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에 최종 성과 보고서와 협약서상에 의무 및 연구개발 목표 이행성과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 2010년 10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은 성과보고서 및 증명서를 토대로 Fluidigm의 협약서상의 의무 및 개발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한 후 최종 확인서를 발급, 협약서상의 보조금을 지급함
- 2007년 2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Fluidigm 간 인센티브 관련 2차 협약서 체결. 주요골자는 1차 협약과 비슷하나 보조금 규모 및 보조금 수혜를 위해 달성해야할 연구개발 목표수준 및 제조 규모 등은 차이가 있음
- 2차 협약서 주요 내용
 - 인센티브 지급대상 프로젝트 시기: 2006. 6.1~ 2011. 5. 31
 - 지급대상 활동 및 지급내용은 1차와 동일, 지급요건은 연구개발 수준, 고용수자 등 골자는 동일하나 세부내용에는 차이가 있음
 - 최대 지급가능 보조금 : S\$370만 (2011년 환율기준 US\$280만)
- 2011년 7월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한 결과 1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수혜 받음. 1, 2차 협약상의 의무요건 이행결과 수혜 받은 총 금액은 약 265만 싱가포르 달러임

[사례1 : 삼성전자 모바일(외국기업)]

□ 프로젝트 주요 내용

- 투자규모 : 6억 7천만불
- 투자기업 : 삼성전자(한국기업)
- 투자지역 : 박닝성(하노이 인근)
- 투자시기 : 2008년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조세감면 : 법인세 50년간 10% 적용, 이익 발생 후 9년간 법인세 감면, 5년간 부품수입시 무관세
- (지방정부) 고용보조금 제공, 도로 등 각종 인프라 건설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최초 투자시점부터 베트남 정부와 직접 투자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기존 투자인센티브 범위를 초과하는 혜택을 약속받았음. 법인세 50년간 10% 적용은 베트남 투자기업들 중 최초이며, 5년간 부품수입세 면제의 경우 삼성전자를 위해 베트남 수상이 특별령을 발령하였음
- (지방정부) 베트남 규정상 일정 이상 대규모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삼성의 경우 구체적인 보조금 인센티브 지급액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인력양성 교육과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례2 : KEFICO(외국기업)]

□ 프로젝트 주요 내용

- 투자규모 : 6천만불
- 투자기업 : KEFICO (한국기업)
- 투자지역 : 하이즈엉성(하노이 인근)
- 투자시기 : 2009년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High Tech 인센티브 획득, 법인세 15년간 10% 적용, 면제기간 종료 후 9년간 50% 감면
- (지방정부) 인력 교육 보조금 제공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신규 High Tech 인센티브 법이 발효된 후 외국기업으로 최초로 인센티브 수령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베트남 규정에 근거 1년간의 제품 생산, 경영 환경 등 실사를 거쳐 선정되었음
- (지방정부) 베트남 규정상 일정 이상 대규모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KEFICO의 경우 자체 인력 양성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인력교육 관련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 만

[사례1]

□ 프로젝트 주요 내용(국내기업)

- 투자규모 : NTD23.7백만 (1단계 투자금액)
- 투자기업 : 台灣永光化學工業股份有限公司(Everlight Chemical)
- 투자지역 : 타오위엔현 관인공업구 (桃園縣觀音工業區)
- 투자시기 : 2010. 5월
- 투자내용 : 그린에너지 첨단 화학제품 R&D 센터 설립
- 프로젝트 기간 : 2010.5월~2013.4월 (1단계 : 2010.5~2011.4)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대만 경제부 R&D 보조금 NTD4.9백만 지급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지급근거 : 녹색에너지산업 업그레이드 방안(綠色能源產業旭升方案)
- 지원절차 : R&D 사업계획 사전협의(투자기업-대만경제부 기술처) → 사업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초심 → 계획서 재심(운영계획 및 재무상황) → 계획 비준

[사례2]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투기업)

- 투자규모 : NTD500백만
- 투자기업 : 台灣東電化股份有限公司(Taiwan TDK)
- 투자지역 : 타오웬현 양메이시 (桃園縣楊梅市)
- 투자시기 : 2011. 12월
- 투자내용 : TDK 전자부품 R&D 센터 설립
- 프로젝트 기간 : 2011.12월~2014.11월 (1단계 : 2010.5~2011.4)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대만 경제부 R&D 보조금 NTD95.7백만 지급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지급근거 : 혁신형 R&D 센터 설립 프로그램
- 지원절차 : R&D 사업계획 사전협의(투자기업-대만경제부 기술처) → 사업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초심 → 계획서 재심(운영계획 및 재무 상황) → 계획 비준

인도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 한국기업 A 인도법인 생산공장 설립 추진의 건
 - 투자 규모 : 약 5억원
 - 투자지역 :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州), 데라둔
 - 투자시기 : 투자 계획 단계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지원 없음
- (지방정부) 우타라칸드주 지원 정책
 - 해당 지역에 3년 내 공장 설립 완료시 법인세 최초 5년간 면제, 향 후 20년간 법인세 25-50% 감면
 - 입지를 위한 부지 할당 지원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해당 없음

○ (지방정부) 협상형 인센티브 지급

- 우타라칸드 주정부는 해외 기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인도 기업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해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해외 기업이 해당 주에 진출을 고려할 경우 주정부 관계자들이 협상을 통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인센티브는 가변적임

인도네시아

□ 포스코의 일관 제철소 건립(외국기업)

- 투자기업: POSCO(한국)
- 투자규모: 30억 달러
- 투자지역: 찰레곤(자카르타 서쪽)
- 투자시기: 2010년(현재까지 진행 중)

□ 인센티브 지급내역

- 인도네시아 정부는 15년간 법인세 감면을 제시한 반면, 포스코는 18년을 요청하여 현재 협상 진행 중

□ 인센티브 지급 이유, 절차 등

- 포스코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연간 70억 달러의 생산유발 효과와 연간 1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의 추천을 받아 재무부 장관(Ministry of Finance)이 결정

브라질

[사례 1]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 현대자동차 1차 협력기업으로 현대자동차가 브라질 현지 진출을 함에 따라, 동반 진출
- 총 투자규모는 약 700억원이며, 브라질 진출을 위한 준비 기간은 약 3년 소요. 현재 350여명의 근로자 채용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지방정부) 토지 무상제공, 공장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전기, 수도 등) 및 공장까지 연결되는 도로 건설 등의 인센티브 지급

* 연방정부로부터의 인센티브 지급내역은 없음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지방정부) 브라질의 인센티브는 협상형으로, 해당 시 정부와의 협상에 따라서 인센티브 혜택이 달라질 수 있음
- 각 시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담당부서가 있으며, 인센티브 관련 협상은 해당 담당자와의 협의 후에 시장이 최종 결정
- 인센티브 협상 시, 직접 고용인원 및 예상 매출액 등을 요청하여 해당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지역 경제 기여도를 판단하여 결정

[사례 2]

□ 프로젝트 주요 내용(외국기업)

- FOXCONN 그룹은 애플의 아이패드를 브라질에서 생산하기 위해 상파울루 인근 도시인 이투(ITU)에 생산 기지 건설
 - 총 투자규모는 약 5억불이며, 약 1만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할 예정
 - FOXCONN은 이미 상파울루에 두 개의 조립공장이 있으며, 아마조나스주와 미나스제라이스주에 각 한 개의 조립공장 운영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내역

- (연방정부) 공업세(IPI) 감면(15%→3%) 및 사회보장세(PIS/Cofin) 면제
 - * 토지무상임대 및 기초공사 등 지방정부의 인센티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 해당국가 정부의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이유, 절차 등

- (연방정부) 브라질 정부는 IT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
 - 브라질 과학기술부와 협의를 통해 세금 감면에 대한 인센티브를 취득
- (지방정부) 상파울루 주 투자유치기관(Investe Sao Paulo) 및 해당 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취득
 - Investe Sao Paulo와는 약 3년에 걸친 협상 과정을 통해 최종 투자 지역으로 상파울루 주 인근 도시를 확정

Regional Growth Fund case studies: no.2



Zytek

Zytek Automotive is a vehicle engineering enterprise based in Staffordshire. It specializes in the design, development and supply of components for hybrid and electric vehicles for automotive manufacturers. The company received £1.3 million from the Regional Growth Fund for an innov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which led to the introduction of some new and exciting products into a competitive market and the creation of 40 new jobs. Zytek is also working closely with a number of universities to ensure around a third of their new employees will be recent graduates.

On a visit to the company, Business Secretary, Vince Cable said

"My visit to Zytek shows the role that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can play in helping manufacturing and local enterprise through RGF - their £1.3 million award will create jobs at the firm and safeguard others.

"When you visit firms receiving RGF money, such as Zytek, you get a strong sense of the boost it is creating in the local economy. And you mustn't forget that the RGF is across a range of industries, Programmes and locations which when put together build a really strong picture of how this Government is kick-starting the economy."

RGF at Work

"The RGF funding has made a real difference to us at Zytek and alongside our own planned investment has enabled us to develop a number of new and exciting products for this emerging and highly competitive market. Training is very important to us and RGF has meant that we have been able to move closer towards closing the skills gap.

"The support by BIS for our business has been very helpful and as a result we have been successful in securing a number of new contracts. RGF assistance helps in a small way to allow UK based companies to compete on a level basis with overseas competition in growing markets."

**Kerry Diamond, Chief
Financial Officer - Zytek
Automotive**



Regional Growth Fund case studies: no. 3



Bentley Motors

500 new jobs are being created and a further 200 will be protected at Bentley Motors in Crewe following their successful bids to the Regional Growth Fund (RGF).

£3 million is being used by the world-famous company, which has manufactured luxury cars since 1919, to help fund 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which will create a new engine and transmission for the brand to help the business expand into new overseas markets.

A further £1.69 million of RGF has helped train new staff and ensure the Company's skill levels are globally competitive. The grant has also leveraged tens of millions of pounds worth of private investment for the projects.

Deputy Prime Minister, Nick Clegg visited the company in April 2012 and met staff recently recruited thanks to RGF. He said:

'It is fantastic to be announcing 500 new and 200 protected jobs here in Crewe today. Creating jobs and growth is my number one priority for Britain right now. This money means Bentley can take hundreds more people to work in this really impressive factory. It's really good news for the North West and Crewe in particular.'

RGF at Work

Bentley Motors said:
The funding we have received from the Regional Growth Fund will help us in two key ways.

First, it will help to ensure that we have the skilled workforce we need to deliver our projects and remain globally competitive.

Second, the R&D support enables us to work on a key engine development project that will help us expand in key markets'.

KOTRA 자료 13-001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발 행 인 | 오영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3년 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kotra